

학습 된 다정

“ 음... 잠시 날 보고 따라 해볼래? ”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László Moholy-Nagy, Kestnermappe; Komposition, 1922

이름

이유온

성별

XY

나이

17

키 / 체중

184cm / 62kg

외관



외관

본인 그림

마르고 길쭉한 몸뚱이. 머리는 잘 빗어 정리했다. 축 처진 눈꼬리는 덩치에서 오는 위압감을 모조리 상쇄한다. 그리고 보니 어릴 때는 어르신들께 눈이 참 송아지와 똑 닮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이 외의 특징점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반도 땅의 흔하디 흔한 남고생. 그나마 눈 밑에 콧 쪽힘 점이 최소한의 개성을 뽐내는 중이다.

성격

#섬세한 #차분한 #부드럽고_유한

작고 사소한 것을 기민하게 찾아내는데 도가 텃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말을 빙빙 돌리며 대답, 혹은 상황을 회피하려 드는 지,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어찌보면 공기를 읽는 눈치가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행인 점은 유운이 굳이 굳이 숨기고자 하는 사실을 무덤파듯 파헤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인간이란 점이다. 인간인 이상 호기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상대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감정적 동요는 딱히 크지 않은 편. 옆에서 깜짝, 튀어나오는 등 장난을 건다면 크진 않아도 보기 좋게 눈을 땡그라게 뜨는 꼴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의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면 남들과 같이 놀라지만 이성을 찾는 속도가 빠르단 뜻이다. 그는 송아지 같은 눈을 몇번 깜빡깜빡 감았다 뜬 후,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인간이다. 주변인들을 진정시키는 것은 덤이고.

그리고 사람을 잘 밀어내지 않는다. 호구같이 군다는 뜻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람을 잘 보듬는다. 꼭 필요하다면 깊은 고민을 지난 뒤 모진 말을 내뱉기도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걱정스럽다는 눈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인간. 아무튼, 사람을 두 가지 분류로 분류한다면 절대 나쁜 사람의 선에는 들어가지 않을... 이유운은 그런 흔하지만 드문 사람이다.

L/H/S	
Like	소방관, 아이들, 동물
Hate	빈정거림, 부정적인 사람, 따돌림
Scared	손쓸 수 없는 상황

스탯				
근력	민첩	체력	눈썰미	용기
■□□□□	■□□□□	■■■■■■■	■■■■■■■	■■■■■■■

소지품
mp3
초코바(1)
딸기맛 사탕(1)

특징

인적사항

- 5월 31일 생. 혈액형은 AB형.
- 가족관계로는 양친과 두살 터울 남동생이 존재. 두 부모님 모두 직업은 소방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다.
-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원래 살던 곳에서 한번 이사해 왔다.
- 취미는 굳이 꼽자면 홈 가드닝. 재능이 있진 않은 지 식물들을 죽이는 경우가 꽤나 잦다.

학교생활

- 성적은 중상위권, 교우관계는 원만한 보통의 학생이다. 재수없게 잘못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이 나쁜 학생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다. 예의를 깎듯이 지키는 편이기에 선생님들께 꽤나 예뻐 받는 중. 교무실에 들릴 일이 생긴다면 간식꺼리들을 얻어오는 경우가 많다.

특성 설명

- 고민거리 혹은 문제상황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곁을 지키며 기민하게 심신상태를 확인하여 상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전문적이진 않아 약간의 도움을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그 도움조차 절실한 이들은 우리의 곁에 눈에 띄지 않을 뿐, 늘 존재한다.

선관 ×

특성: 상담

“가장 하고싶은 것은… 도움이 필요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일인 몫을 하고 싶어.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줄래?”